

## 교보문고 휴업결정을 보며 생각한다

국내 최대서점인 교보문고의 올 하반기 임시휴업조치 결정이 알려지면서 그 '진의'에 대한 해석들이 구구하다.

교보문고는 지난 27일 그간 소문으로 떠돌던 휴업 혹은 폐업설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매장공간 부족 등으로 포화상태에 와 있는 서점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올 하반기쯤 임시휴업을 단행하고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벌인다는 것.

이에 대해, 출판물량을 제대로 소화해낼 만한 서점공간의 절대부족으로 가뜰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시설 개·보수를 위한 휴업조치가 단행될 경우

140만권에 달하는 교보문고 소장도서의 반송이 몰고올 출판사 재고부담이 당장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며, 만약 휴업이 예상외로 장기화된다면 출판계가 입게 될 매출손실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10~30% 정도로 추산될 만큼 도서판매량의 상당부분을 교보문고에 기대고 있는 일반 인문사회과학 및 학술서적 출판사들이 입을 타격이 꽤 클 것이라는 지적들이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교보문고 휴업결정을 보는 출판계의 입장은 일종의 긴장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긴장 탓인지 얼마전 단행된 교보문고측의, 사장을 포함한 대폭적인 인사이동에 대한 교보문고 바깥의 시선도 결코 심상한 것이 못되어 보인다. 보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이 일련의 움

직임을 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불안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성싶는데, 그같은 불안감은 다시 위기의식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구구한 추측들이 나돌았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하지만, 이제 교보문고측의 공식입장이 표명된 만큼 "휴업이 폐업으로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위기의식은 일단 공연한 것이었다고 판명된 셈이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남은 일은 있다. 그것이 몇 개월이 되든, 일단 휴업이 단행될 경우 초래될 문제들을 극소화하는 데 교보문고와 출판계 모두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그 첫째 일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제 교보문고는 단순히 기업의 논리로 움직일 수만은 없는, 우리 문화의 가장 크고 훌륭한 그릇중의 하나라는 사실에 교보문고나 우리들이 똑같이 동감하고 명심하는 일일 것이다.

—강철주 부장

## 출판저널

통권 제83호 / 1991년 5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晝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允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九淳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주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孝彬	琴季華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淳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慎鍾復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景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燦勳
李相田	李勝羽	李元毅	李重漢
李姬載	林禧燮	張必和	張晉翼
鄭丙圭	鄭秉鍾	鄭雲瑛	鄭晉錫
鄭鎭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慶	韓勝憲	許顯烈	洪廷壽
黃鉉產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지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재미있는 책이야기

‘도서출판 책’이 최근 젊은 독문 학자 이민용씨(순천향대 강사)의 번역으로 선을 보인 독일작가 알폰스 슈바이게르트의 소설 「책」(Das Buch)은 여러 모로 흥미를 끈다.

그다지 길지 않은 분량의 이 소설은 제목이 지칭하듯 책을 소재로 한, 책에 관한 책이다. 책을 중심으로 하여 책, 독자, 장서가, 작가, 출판업자, 편집자, 비평가, 사서, 서점주인 등을 엮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 줄거리도 주인공 비블리가 책으로 변한다는 다소 ‘카프카적인’ 소설적 허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간명하다.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다.

① 애서가 비블리는 벼룩시장에서 「책」이라는 책을 훔친다 ② 「책」의 주술적 마력 때문에 비블리가 책으로 변한다 ③ 비블리가 변해서 된 책이 청소부-도서관장-사서-편집자-작가-고물상-비평가-제본업자-장서가-벼룩시장 등을 거치며 일련의 사건을 보고 겪고 일으킨다 ④ 비블리가 다시 사람으로 변신해 이내 죽는다.

이같은 줄거리의 저변에 깔린 이 소설의 주제는 진리의 그릇인 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러한 책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는데, 작가 슈바이게르트는 이야기로서 뿐 아니라 책에 관한 수많은 경구들로도 그같은 사랑과 비판을 적절히 표현해 놓고 있다. 예컨대 “상상력의 왕국으로

날아가는 양탄자, 그게 바로 책이야”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다” “오래된 책의 갈피 속에 남아있는 담뱃재는 한때 독서가였던 사람의 인생에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 같은 것들이 그 좋은 보기들.

한편, 이 소설에서 책으로 변한 비블리는 두번의 살인과 한 차례의 강간을 통해 ‘책들의 복수’를 감행하고 있는데, 그 희생자가 다름아닌 비평가, 장서가, 편집인들이라는 점이 또한 흥미를 끈다. 이번 호에는 이들이 왜 ‘책들의 복수’의 대상이 돼야 했는지를 작가 슈바이게르트의 몇몇 문장의 발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인(아버마스출판사의 여자 편집인인 유스틴 폴터 크라머양은 책으로 변한 비블리에게 강간당한다)

“원고편집인은 직업상 독서가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생해서 번-책읽는 일을 통해! -돈으로 서점에서 책을 산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다. 더구나 책을 읽기 위해 근무가 끝난 뒤에도 책상머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선물받은 책들을 들추어 보는 사람은 종종 있다.”

▲비평가(평단의 ‘교황’ 비르쉬 모린스키는 책으로 변한 비블리에게

‘맞아’ 죽는다)  
“비평한다는 것은 언제나 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평해서는 안된다.”

“비블리는 자기 앞에 시체가 놓여 있는 것을 본 순간 내부에서 자존심을 느꼈다. 이 세상에서 한 비평가에게-이미 수많은 책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재판관-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손수 죽음을 가져다 준 최초의 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책들은 중국적인 종말을 맞기까지 지하창고나 쓰레기더미, 상점의 지저분한 책상 같은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종종 몇년을 더 보내야만 했고 마침내는 먼지로 파기되고 잊혀졌다. 이에 반해 비블리는 이 비평가를 단 일격에 저 세상으로 보냄으로써 비교적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였다. 어쨌든 적어도 이러한 류의 한 본보기에 대해 수백년동안 예비되어온 복수를 한 것이다. 비블리는 ‘책을 공격하는 자는 책에 의해 망할 것이다’라고 성서의 한 말씀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다.”

▲장서가(별장에 개인도서관을 설치해 놓고 있는 ‘고상한 신사’는 차속에서 책으로 변한 비블리의 공격을 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켜 죽는다)

“잠시 후에 문이 열렸고 대단히 값지고 기념비적인 도서관의 모습이

드러났다. 은은하게 빛나는 비싼 나무로 된 서가들에는 고상한 호화장정본들이 꽂혀 있었는데, 금박을 입힌 낡은 가죽의 책등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비블리는 자신이 이 훌륭한 지하 책 무덤에서 책중에서도 가장 가치있는 건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줄 아는 한 책 장의사의 수중에 떨어졌음을 알게 됐다. 그 사람은 그의 보물들 중의 하나도 손에 드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였다. 그는 재산을 여기에도 모아놓기만 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비블리는 여기가 이제 자신의 종착지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이 죽음의 지하홀에서 모든 빛과 공기와 생명으로부터 차단된 채 끝도 없이 무위도식해야 할 것이다. 비블리는 자신을 둘 적당한 자리를 찾고 있는 이 말쑥한 신사의 차갑고 소유욕에 찬 눈을 보는 순간 그같은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에라스무스 폰 로테르담이 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았다.

책을 손도 대지 않은 채 책장에 올려두는 사람은 책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밤낮으로 손에 들고 그래서 때가 끼고, 책장의 귀들이 접혀지고 손상되며 뻑뻑하게 주석을 달아놓는 자만이 책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